‘방탄 유리천장’ 광주…여성 승진자 비율 11.9%

광주 10명 중 1명 여성 승진…공업도시 울산 제외 특광역시 중 꼴찌

정규직 평균 채용 광주 0.3·전남 0.2명…광주, 3년 연속 평균 밑돌아

지배구조 등의 개선을 위한 ESG 경영에 성평등 가치가 주요 지표로 작용하는 가운데 광주 사업체들의 여성 승진비율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 ‘2020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주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승진자 중 여성의 비율은 11.9%로, 전년보다 8.8%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평균 여성 승진비율은 13.4%로, 전년보다 9.7%포인트 줄었다.

광주 여성 승진 비율은 2017년 15.0%, 2018년 14.2%, 2019년 20.7%, 2020년 11.9% 등으로 2020년 최저를 기록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에는 광주 여성 승진비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남 여성 승진비율은 2017년 14.3%, 2018년 17.3%, 2019년 12.2%, 2020년 14.0% 등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2020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여성 승진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9.4%로 집계된 대전이었다. 이어 강원(18.4%), 서울(17.6%), 부산(14.1%), 전남·대구(각 14.0%) 순으로 높았다.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꼽히는 울산(8.5%)과 경북(9.4%) 등이 여성 승진비율이 낮았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지원 및 남녀고용평등 정책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전국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5000곳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월21일부터 8월27일까지 조사를 벌였다.

이들 사업장의 여성 정규직 평균 채용자 수는 국가통계를 낸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광주 여성 평균 채용자 수는 2017년 3.5명에서 1.8명(2018년)→0.9명(2019년)→0.3명(2020년) 등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2017년에는 여성 채용자는 3.5명으로, 남성(3.2명)보다 많았지만 이후 해마다 남성보다 정규직 채용이 뒤졌다.

전남지역도 여성 정규직 채용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규직 평균 채용자 수는 1.3명(2017년)→1.2명(2018년)→0.8명(2019년)→0.2명(2020년) 등으로 감소했으며, 전국 평균을 매년 밑돌았다.

반면 광주의 경우 여성 비정규직 채용은 매년 남성 평균을 웃돌았다.

광주지역 비정규직 평균 채용자 수는 2.0명(2017년)→1.0명(2018년)→0.4명(2019년)→0.2명(2020년)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남성 비정규직 채용은 0.7명→0.9명→0.3명→0.1명 등으로 매년 여성보다 적었다.

임금이나 교육기회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역 응답률도 상당했다.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차별성을 묻기 위한 ‘직급이 같아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다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4점 기준에서 광주가 평균 1.7점을 나타내며 대구·경기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교육기회 등을 부여할 때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항에서는 평균 1.7점으로 집계되며 대구(1.8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을 묻자 광주·전남 사업체들은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개선 캠페인’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 정책을 꼽은 비율은 광주 44.6%·전남 40.3%에 달했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광주 12.2%·전남 14.0%)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지원 및 점검’(광주 11.8%·전남 13.7%), ‘시차출퇴근, 재택,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로제 확산’(광주 10.8%·전남 8.0%), ‘남녀고용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광주 2.0%·전남 11.2%) 등이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첨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전문교육 추진

산단공 광주본부 24억원 투입

전남대·조선대 등과 협약 체결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첨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산단공 광주본부는 지난 3월 호남대·광주과학기술원·전남대·조선대 등 지역 대학과 광주첨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2차년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등을 이끌어나갈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20억원 등 총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한다. 광주첨단국가산단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와 관내 대학 졸업예정자, 구직자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별 교육과정을 특화해 여 스마트제조분야 전문교육, 입주기업 대상 취업연계,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추진하는 전문교육 과정을 보면 ▲호남대(스마트제조 공장·공정관리 6개 교육과정 26개 세부과목) ▲광주과학기술원(스마트제조 고도화·전문가 8개 교육과정) ▲전남대(스마트제조 설계분야 12개 교육과정 33개 세부과목) ▲조선대(스마트제조 가공분야 7개 교육과정 30개 세부과목) 등이다.

황상현 산단공 광주본부장은 “올해 추진하는 2차년도 인력양성 사업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제조현장 스마트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력양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지난해 5월 공모를 통해 호남대 등 4개 대학 컨소시엄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국비 60억원을 지원해 1차년도 사업을 시작했으며 산단 입주기업 재직자 등 530여명에 대한 전문교육과 취업연계, 스마트제조 인프라 확충,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가방·스니커즈 취향대로 꾸며요” 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2층 골든구스 매장에서 이달 10일 단 하루 진행하는 사전 예약 행사 견본을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오는 10일 예약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취향대로 신발과 가방을 꾸밀 수 있는 행사를 연다. 〈롯데백화점 제공〉

신용보증기금 홍보 콘텐츠

5월13일까지 공모전 개최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5월13일까지 ‘2022년 신용보증기금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기관 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자유주제를 포함해 ▲신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한 고객가치 창출 ▲ESG경영을 선도하는 신보 등이 있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4인 이하)으로 참가할 수 있다.

1~2차 심사를 거쳐 5월 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팀), 우수상 2명(팀), 장려상 15명(팀) 등 총 19명(팀)의 수상자에게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신보의 홍보 콘텐츠로 제작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태풍에 강한 벼 ‘강대찬’ 본격 육성

올 하반기 정식품종 등록 예정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전남 벼 신품종 ‘강대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농협 전남본부와 전남도농업기술원, 강대찬 생산자연합회, RPC광주전남협의회는 4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전남쌀 신품종 강대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벼 신품종 강대찬은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개발했으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현장실증 등 육성기간을 거쳤다. 신동진과 새누리, 추청 등 3개 품종을 교배했다. 지난해 품종보호권등록을 신청해 올 하반기 정식품종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강대찬은 식당 등에서 선호하는 대립종 고품질 품종 필요에 따라 개발됐다. 벼 쓰러짐(도복)과 수발아,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우수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고품질 강대찬 벼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 기술 습득 및 교육에 협력한다.

안정적인 계약재배를 위해 원료곡 종자를 우선 공급하고 수매 자금지원과 공동 홍보 및 마케팅에도 힘쓴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전남 쌀이 소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과 철저한 품질관리, 단일품종 유통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57.90 (+18.05)
↑	코스닥	947.32 (+6.75)
↑	금리 (국고채 3년)	2.837 (+0.053)
↓	환율 (USD)	1214.40 (-1.10)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신안동 상업부지, 땅
176평, 오피스텔 허가 득
매매 – 21억, 조정가

덕남동 임야, 최고 투자처
660㎡, 지분매매, 개발호재 多
매매 – 44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33평, 사무실 전용, 전망좋음
급매 – 8천만원, 즉시 입주가

대인동 오피스텔부지, 땅
156평, 9층 허가 득
매매 – 18억 5천만원, 조정가